민주 전대 전초전, 시·도당위원장 경선 관심 집중

주류 VS 비주류, 관록 VS 패기 '빅뱅'

광주 강기정-김재균, 전남 이낙연-이윤석 격돌

이달 중순께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 선출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대형식으로 선출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광주시당의 경우 강기정·김재균 의원이, 전남도당은 이낙연·이윤석 의원이 각각 출마선언 또는 출마를 시사하면서 치열한 경선이 펼쳐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의 경우 당내 주류(강기정 의원)와 비주류(김재균 의원) 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사실상 전당대회의 '전초전'이나 다름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광주시당, 주류 대 비주류 '빅뱅'=1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인 8월 중순께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은 강기정(북갑) 의원과 김재균(북을)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7·28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하면서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탓인지 이번 위원장 경선은 사실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 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김재균 의원은 이미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면서 사실상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강기정 의원도 최근 "광주시당을 맡아서 좋은 방향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다"며 시당위원장 경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당내 주류와 비주류 대표의원 간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이후 주류 측에 대한 비주류 측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세 대결'이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론과 함께 현재 당 체제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에서는 비주류 측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류 측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에서 노출된 민주당 일당체제에 대한 반발과 공천과정에서 배제된 당직자와 당원들의 불만을 안으면서 주류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김재균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과정에서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합동기자회견에서 행해진 민노당에 대한 이념공세와 색깔론 등 왜곡된 폄하에 대해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이는 민주당의 소통 부재와 독선적인 일방통행식 당 운영의 행태가 그대로 나타난 기자회견이었다"고 일부 주류 측 의원을 꼬집었다.

따라서 향후 시당위원장 경선이 자칫 심각한 당내 내분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당, 관록 대 패기=추대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전남도당위원장 선출도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전남도당 안팎에서는 3선인 이낙연(58·함평·영광·장성)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분위기가 파다했으나 최근 초선인 이윤석(50·무안·신안)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자 대결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윤석 의원은 1일 "민주당과 전남도당 발전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며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낙연 의원도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지역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중·하순께로 예정된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은 '3선의 관록' 대 '초선의 패기'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이 7·28 재·보궐선거에서 패함에 따라 당권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당대회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도당위원장 경선도 주류와 비주류 간 대리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북한에서 흘러 내려온 목함지뢰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1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에서 육군 25사단 병사들이 탐색기로 지뢰를 찾고 있다. <원내는 목함지뢰의 목함> /연합뉴스

北 '목함지뢰' 잇단 발견…접경지역 초비상

민간인 2명 사상…軍, 북에 재발방지 촉구

인천 강화도에서 목함지뢰가 첫 발견된 데 이어 경기도 연천에서도 목함지뢰가 터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나자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1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한군에 발송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 임진강 지류 사미천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 한모(48)씨와 김모(25)씨가 목함지뢰 2발을 주워 가지고 나오다 이중 1발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한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씨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뒤 1일 오전 7시20분부터 사고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벌인 육군 1군단은 사고현장 하천변 100여m 구간에서 목함지뢰 17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앞서 강화도에서는 지난달 30일 목함지뢰가 첫 발견된 뒤 이틀간 수색작업을 벌여 모두 8발을 수거해 처리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일 "경기도 강화군 소재 미법도, 교동도, 석모도에서 오늘 목함지뢰 4발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어제부터 지금까지 발견된 북한의 목함지뢰는 총 33발"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출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지역의 홍수로 매설됐거나 보관 중이던 목함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진강, 한강, 서해로 이어진 연천과 강화도에서 목함지뢰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군당국은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함지뢰가 북한 유입 수계에 다량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11곳 수계에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인 유실지뢰 수거작전을 펴고 있다.

군당군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주민과 피서객에게 유입수계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목함지뢰는 가로 20㎝, 세로 9㎝, 높이 4㎝의 나무상자에 폭발장치를 한 것으로 상자를 열거나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폭발하도록 장치돼 있다. /연합뉴스

G20 정상회의 D-100, 건국 이래 최대 규모 국제 행사

국가 원수 35명 등 1만명 방한…파급효과 막대

코리아 프리미엄 정착…세계 중심국 반열 진입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행사가 될 제5차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11~12일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를 지구촌 변방약소국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중심국 반열에 올려놓는 역사적 전기가 될 전망이다.

강대국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만 했던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스스로 마련하는 장(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도 있다. 한마디로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도약한 것이다.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선진국 도약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 진입 단계에 도달했음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의 지위를 확보, 세계 경제질서 재편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에서 선도국가의 역할과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 역을 맡게 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유치를 확정한 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통해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그 규모나 파급효과 면에서 실로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대 효과도 훨씬 크다. 우선 국가 인지도와 브랜드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못지않은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렸던 정상회의 가운데 가장 많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다. 20개 회원국 정상뿐 아니라 지역 대표와 국제기구 수장 등 30여명의 정상급이 참석하고 수행원과 경호원, 취재진 등을 합하면 1만명 가까운 귀빈이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이목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G20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대 6700억원으로 추산됐던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제 효과를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는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이슈 등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中 홍수 고립 관광객 구조…한국인 1명 사망

중국 랴오닝성 푸순시 신빈지역에서 홍수로 고립됐던 단체관광객 가운데 한국인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관광객 55명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홍수로 다리가 붕괴되자 급히 버스에서 내려 현장을 피했으나 한국 국적을 보유한 중국 동포 천모(여·43)씨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천씨는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관광객들은 중국 경찰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모두 무사히 선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 홍수 피해가 극심하다"며 여행객들에게 방문시 유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연합뉴스